

청자불상

푸른 산죽 무리 사이사이에 진달래꽃이 붉었다. 덕룡산 산자락은 온통 붉고 푸르렀다. 너털길을 걷던 요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요세에게 법을 받은 41세의 천인이 다가왔다. 천인은 스승 요세가 백련사에서 용혈암으로 온 까닭은 자신의 생이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요세는 세상나이 83세였다. 요세가 너털길에 주저앉으며 숨을 골랐다.

“스님, 진달래꽃이 붉습니다.”

“여기 진달래꽃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스님, 미타정토에도 진달래꽃이 필 것입니다.”

“눈이 진달래꽃을 보는가, 마음이 보는가?”

“마음이 봅니다.”

“그렇지. 마음이 있으니 진달래꽃을 보는 것이야. <관무량수경>의 부처님 말씀을 잊지 말게.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是心作佛 是心是佛).”

천인이 요세의 말을 새기면서 합장했다. 사십대 초반의 요세가 영암 약사암에서 정진할 때였다. 요세는 날마다 <법화경> 한 부를 외우고 아미타불을 1만 번 염불했다. 오십대 초반이 되었을 때, 탐진의 토호 최표, 최홍, 이인천 등의 권유로 만덕산 만덕사로 옮겨가 사찰이름을 백련사로 바꾸었다. 그러자 요세의 명성을 들은 승려들이 모여들었고,

요세는 백련결사를 결행했다. 백성들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백련사 결사는 아미타염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몽을 실천하는 보현도량으로 이어졌다. 이때 요세의 뜻을 받들었던 승려가 바로 천인과 천책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요세에게 묘법을 받은 천인은 백련결사 2세가 되었던 것이다. 천인이 화제를 바꾸었다.

“스님, 지난달에 조운선을 타고 강도에 다녀왔습니다.”

“백성들이 위안 받을 만한 소식을 들었는가?”

“예, 진양후께서 강도에 선원사를 창건하시었습니다.”

강화천도를 단행하고 강도성을 쌓아 몽골대군의 침입에 대비한 공으로 최우는 진양후(晉陽侯)가 되었던 것이다. 최우는 국자감을 수리 정비하고, 쌀 3백석을 양현고(養賢庫)에 시납하여 장학(獎學)에 힘쓰는 한편, 사재를 하동의 호족이자 처남인 정안(鄭晏)과 함께 회사함으로써 대장경판(大藏經版) 재조(再雕)를 완성하게도 했다.

“진양후께서 선종을 후원하시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선원사도 선종사찰이 아니겠나. 허나 대장경판을 재조하신 일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야.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자 거란군이 물러갔으니 말이야. 대장경은 선종과 달리 우리 천태종이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부처님 말씀이니 말이네.”

요세는 눈을 감고 말했다. 초조대장경을 조판한 후 결과적으로 거란군이 물러갔던 것은 사실이었다. 최우는 또 다시 불력(佛力)으로 몽골군을 격퇴하고자 재조대장경을 본래 강화성 서문 밖 대장경판당에 보관했다가 선원사로 옮겼다. 그런데 최우에게는 그런 이유 밖에 또 하나의 계책이 있었다. 그 계책은 대장경을 중시하는 천태종을 달래어 우군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고종19년(1232)에 몽골군이 침공하여 팔공산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

경이 불타버리자, 최우는 몽골 침공이라는 국난의 엄중한 현실에서 선종 교종 할 것 없이 결속을 강화하고자 고종 23년에서 시작하여 고종 38년까지 대장경 재조라는 16년에 걸친 불사(佛事)를 주도했던 것이다.

“진양후께서 잘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단속사에 어사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만종선사의 횡포가 아직도 심한 것인가?”

“어사를 파견해서 만종선사가 쌓아둔 곡식을 양민들에게 돌려주고 무뢰승들을 붙잡아 옥에 가둘 것이라고 합니다.”

“국란 중에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지. 양민들의 마음을 모아야지 반대로 해서야 어찌 국란을 극복하겠나. 우리가 백련사를 보현도량으로 일구어낸 것도 국란을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겠나.”

요세는 숨이 차는지 더 이상 말을 못했다. 눈을 감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아미타불을 중얼거렸다. 천인은 스승 요세가 천수를 다해간다고 직감했다. 과묵한 스승 요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토해내듯이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직감이 들었다. 천인의 예감은 적중했다. 요세는 가을로 접어든 입추 저녁에 천인을 불러 말했다.

“가을철이 들었으니 내가 가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숨기운이 전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열반하려고 한 지가 오래이나 무더위 때라 적절치 않아 입추를 기다리느라고 지금껏 미루었느니라.”

축시에는 시자에게 경쇠를 쳐서 대중을 모으게 하고 법좌에 올라 말했다.

“50년 동안 산속에서 삭은 이 몸이 오늘 떠나가느니라. 각자 정진하고 법을 위해 힘쓰라.”

천인이 마음을 진정하고 물었다.

“세상을 떠날 때 선정에 든 마음이 곧 극락정토인데 다시 어디로 가시렵니까?”

“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도(道)가 나타나느니라. 나는 가지 않아도 가는 것이며 그대들은 오지 않아도 오는 것이어서 서로 감응하여 도가 오가는 것이지 실상은 마음 밖에 있지 않느니라.”

또한 요세는 입으로 불러 주며 천인에게 계송을 쓰게 했다.

닭이 축시에 우니 밝은 구슬은 한 알 빛을 잃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아, 내 한 말 들으라.

다만 지금 누가 입을 열 것인가!

요세는 곧 선정에 든 것처럼 고요해졌다. 천인이 가까이 다가서 보니 이미 입적해 있었다. 세속나이 83세였고, 출가 했수 70년이였다. 얼굴 빛이 맑고 희어 보통 사람과 달랐다. 손발이 부드럽고 머리 정수리는 오래도록 따뜻했다. 고종이 부음을 듣고 슬퍼하며 유사에게 명하여 국사로 책봉하고 원묘(圓妙)라는 시호를 내렸다.

천인은 스승이 입적한 용혈암을 떠나지 않았다. 용혈암에 주석하면서 법문이 있는 날에만 백련사로 갔다. 원묘국사 요세가 열반한 용혈암은 강도의 선원사 못지않게 성지가 되었다. 무신들이 다투어 수레를 타고 용혈암으로 내려와 천인을 친견했다. 천인은 그들에게 탐진 청자를 선물하곤 했다. 탐진 도공들도 용혈암을 자주 찾아왔다. 도공들은 천인에게 청자를 보시하고 복을 빌었다. 그러나 천인은 단명했다. 스승 요세가 가고 난 지 3년 만에 오로지 서방정토 가는 일에만 몰두하더니 10

여 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 천인이 제자 원환(圓院)에게 묘법을 물려주며 당부했다.

“내가 죽거든 후한 장사나 탐 같은 것을 세우지 말고, 지위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비명도 받지 말고, 다만 버려진 땅에 가서 화장하도록 하라.”

천인은 천태종 스님이었지만 선승의 면모가 강했다. 요세를 스승으로 삼고 나서도 그의 곁에 있기보다는 홀로 정진하기를 좋아한 나머지 용혈암에 머물렀던 것이다. 일찍이 진각국사 혜심을 찾아 조계의 선지(禪旨)를 터득하고 백련사에 돌아와 보현도량으로 일구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서는 2년 후 지리산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몇 년 뒤 천인이 나타나자 요세는 그에게 의발을 전수하려고 했지만 또 천인은 백련사를 떠나버렸다. 그러자 요세가 사람을 보내 “어찌 배절(背絶)하기를 그리도 경솔히 하느냐!”하고 꾸짖었다. 할 수 없이 천인은 백련사로 돌아와서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함은 대인(大人)의 일이고, 구차히 자기만을 위함은 한갓 소절(小節)에 구애되는 것이므로, 오직 의(義)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길을 바꾸어 돌아왔습니다.”하고 요세에게 참회하며 큰절을 올렸던 것이다.

천인은 백련사에서 다시 용혈암으로 올라가 자신을 후원했던 최상국(崔相國), 정참정(鄭參政)에게 편지를 썼다. 이윽고 시자를 불러 말했다.

“하늘로 솟구치는 대장부의 기염(氣焰)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에 시자가 대답했다.

“사방 맑은 경지가 앞에 있는데 어느 곳에 노니시려고 그러하십니까?”

“오로지 한 성품 경계 안에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 대중에게 말했다.

“병든 중이 10여 일 곡기를 끊었더니 다리에 힘이 없다. 그러나 법신

이 년지시 도와준다면 다리 힘이 차츰 날 것이다. 그 다리 힘을 가지면 극락에도 갈 수 있고, 불국에도 갈 수 있으며 마침내 오온(五蘊)이 깨 운해져 삼계에 흔적이 없어질 것이니라.”

이어 천인이 계승을 읊조렸다.

반륜(半輪)의 밝은 달과 흰 구름

가을바람이 샘물소리를 보내는데

거기는 어딘가

시방(十方) 무량의 불찰(佛刹)은 미래의 불사를 다했다.



천인은 말을 마치고는 곧 입적에 들었다. 세상 나이는 44세였고, 출가 했수 23년이였다. 제자 정관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지방을 가니 한 사람이 크게 외치기를 “천인 화상이 이미 상품(上品)을 얻어 중생을 제도 하러 세상으로 내려갔다(下世)고 했다”고 말했다. 고종은 애통해했다. 3년 만에 원묘국사에 이어 또 고승을 잃었기 때문이였다. 고종은 천인을 정명국사로 책봉했다.

용혈암을 오르내리던 도공들은 하나같이 비통해했다. 무슨 말을 묻던

지 천인은 정성을 다해 법문해 주고 가마 속에서 청자가 잘 나오기를 기도해주곤 했던 것이다. 도공들 중에는 초벌구이를 가지고 와서 형태와 투각, 음각, 양각 등의 조화를 묻기도 했다. 그런 뒤 천인의 호평이 없으면 용혈암을 나와서 미련 없이 깨버린 뒤 계곡에 던졌다. 천인은 도공들에게 품평을 해주는 스승이었던 것이다.

도공들은 누구보다도 천인의 입적을 슬퍼했다. 천인의 시신이 누인 용혈암 앞에서 밤을 새우며 통곡하는 도공도 있었다. 그러자 한 늙은 도공이 소리 내어 우는 도공을 위로했다.

“울지 말어. 운다고 스님이 살아오시는 것도 아닌게.”

“스님이 가시니 비통해서 그래라우. 스님이 우리 도공덜을 을매나 애끼셨다고라우.”

“누가 모른당가. 나도 실은 저 짝 백련사 만덕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스님이 거멍거멍 오실 것만 같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스님상이라도 맨들어 둘 걸 그랬어라우.”

“자네 말 한 번 잘했네. 스님상을 맨들어 자네 원불(願佛)로 삼어 봐. 아니면 용혈암에 갖다 주던지.”

“어르신 말씀대로 그래볼께라우?”

“그라믄 스님은 가셨어도 자네 곁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스님상을 갖고 있으면 자네에게 복을 많이 줄 것이네.”

“여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그만요. 스님이 머릿속에 생생할 때 맨들어야졌그만이라우.”

“잘 생각했네. 나는 천책스님을 맨들어볼라네.”

늙은 도공은 천책과 인연이 깊었다. 천책 역시 천인과 마찬가지로 용혈암에 여러 해 머물렀는데, 사람들은 그를 ‘용혈대존숙(龍穴大尊宿)’이라 불렀다. 그런데 천책은 스승 요세보다 두어 달 먼저 백련사에서 입

적하고 말았다.

천인은 천책보다 한 살 많았다. 출가한 해는 고종15년(1228)으로 같았다. 그때 천인은 24세, 천책은 25세였다. 그들은 모두 국자감 출신이었다. 천인은 천책보다 2년 앞서 국자감에 들어가 제일석(第一席)을 차지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등용의 폭이 좁아진 춘관사에서 번번이 급제를 하지 못했다. 반면에 천책은 18세에 국자감에 들어와 그 다음해 진사에 오르고 예부시에 급제하여 20세에 벼슬을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날 함께 출가의 길에 올랐다. 당시의 심정을 천책은 자신의 저서 <호산록>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다행히 뜻을 같이 한 우리 두 사람은 남모르게 천리 길을 함께 출발했는데, 곤경과 위험을 고루 겪었습니다. 40일 만에 비로소 참배하였습니다. 만덕산은 땅이 후미지고, 사람은 드물고 고요하며 가고 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구름 낀 봉우리와 안개 자욱한 섬들이 둘러싸인 것을 볼 뿐이며, 푸르고 푸른 사이에 대나무와 맑은 샘물은 즐길 만하고 상찬할 만했습니다. 이윽고 두툼한 눈썹의 노스님 네댓 명이 문을 나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천인과 천책은 가족과 친지에게 알리지 않고 40일을 걸어 노스님 네댓 명이 미소를 짓는 만덕산 백련사로 출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길은 같은 듯 달랐다. 천인은 줄곧 선승이 면모를 보였고, <백련결사문>을 찬술한 천책은 문장이 빼어난 학승 같은 자취를 남겼다.

천인에게 용기와 위로를 받곤 했던 젊은 도공은 집으로 돌아와 곧장 흠을 만졌다. 천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기 전에 스님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각오했던 것이다. 젊은 도공은 눈을 감고 천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가는 눈썹은 길었고, 눈매는 눈초리가 귀 쪽으로 올라가 약간 매서웠다. 코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입은 항상 꼭 다물고 다녔

다. 정수리는 솟아 있었으며 얼굴은 맑아서 귀티가 흘렀다.

젊은 도공은 흙을 한 덩어리 크게 떼어 스님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승복을 입은 상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빚기 시작했다. 상체는 등을 파서 속을 비게 했다. 가마 속에서 상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입은 예리한 칼로 파내어 음각했다. 코는 흙을 한 줌 떼어 붙였다. 그리고 눈은 길게 선을 그어 표현했다. 뜬눈으로 할까, 반개한 눈으로 할까, 감은 눈으로 할까 망설이다가, 선정에 든 눈이 가장 천인스님다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눈썹은 이마와 음각한 눈 사이에 양각으로 길게 붙였다. 그리고 정수리는 완만하게 솟은 모양으로 잡았다. 젊은 도공의 아내가 하루 만에 완성한 스님상을 보고 말했다.

“천인스님이그만요.”

“나를 많이 도와주셨으께 요르크롬이라도 해서 용혈암 감원스님헌테 갖다줄라고 허네.”

“스님상을 으따 쓴다요?”

“그건 모르겠네. 계속 맨들어서 켈로 잘 나온 상을 용혈암에 드릴라고 허네.”

젊은 도공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스님상을 밤낮으로 빚었다. 열흘이 지나자 열대엿 점이 되었다. 천인스님상을 빚다가 요세스님이 생각나 요세스님상을 빚기도 했다. 요세스님은 천인스님과 달리 후덕했다. 코는 커서 주먹코 같았고 눈은 컸으며, 눈동자는 염주알만 했다. 얼굴은 크고 둥글었다.

그리고 보니 제일 먼저 빚은 스님상이 가장 천인스님다웠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용혈암에서 만났던 스님들의 모습이 조금씩 스며든 것도 같았다. 보름 후 젊은 도공을 위로했던 늙은 도공이 찾아왔다.

“천인스님상만 맨든 것이 아니라 여러 스님상을 맨들었네, 그라.”

“허다 보니 지도 모르게 요러코름 돼부렀그만요.”

“이것이 묘현 것이여. 나도 천책스님상을 맨들었는디 모다 요상허게 돼부렀네. 마치 나한전에 겨신 나한상을 맨들어분 것 같단 마시.”

“그라고 봉께 지도 나한상을 맨들어분 거 같그만요.”

어쩌면 각기 다른 표정 때문에 그런지도 몰랐다. 선정에 든 표정, 눈을 뜨고 무엇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표정, 꺾꺾 웃고 있는 표정, 입을 벌리고 염불하고 있는 표정 등등 천인스님이라고 빗기는 했지만 모습이 각각 조금씩 달랐다. 똑같이 빗었으면 한두 점 만들고 말았을 터였다. 상삼감청자를 만들 때도 조금씩 달라야 집중할 수 있고 몰입이 되었던 것이다. 판박이는 흥미도 일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

“가실 가마에 구워야졌제잉.”

“지는 여름에라도 선선헌 날이 있으믄 불을 땔라고 험니다요.”

“고건 자네 알아서 하소.”

그러나 무더위가 가을 초입까지 이어져 짙은 도공은 가을 가마에 스님상들을 다른 청자 기물들과 함께 가마에 재임했다. 가을장마가 끝난 뒤인 데다가 된하늬바람이 불기 전이었으므로 가마 불은 기가 막히게 잘 들었다. 열흘 후 스님상들은 한두 점 터진 것이 있었지만 잘 나온 편이었다. 비색은 없었다. 다행히 청자향아리가 아니었으므로 청회색도 괜찮았다. 오히려 청회색이 승복을 연상시키어 스님상으로는 제격이었다.

늙은 도공도 마찬가지로였다. 두 사람은 지계에 지고 용혈암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용혈암은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스님상을 지계에 지고 내려왔다. 두 사람이 다시 스님상을 가지고 간 것은 스님들이 용혈암에 주석하고 난 뒤였다. 용혈암 감원스님은 두 사람이 지계에 지고 온 스님상을 보더니 감격했다.

“용혈암에 모시겠소. 저 위 용굴법당에 모시고 아마티불 정근을 해도 좋겠소.”

“그래 주시든 우리야 을매나 좋겠습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 도공이 만든 스님상 중에서 감원스님은 천인상과 요세상을 바로 구별해 내었다.

“나한상 중에서 이 스님상은 요세스님과 천인스님하고 똑 같습니다.”

“어처케 아십니까?”

“천인스님을 시봉했습니다. 또 요세 큰스님이나 천책스님이 오실 때마다 모셨습니다.”

“지덜에게 부탁하고 짚은 청자는 읊습니까요?”

“청자로 불상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굴법당에 모시고 아마타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더 없이 장엄할 것 같습니다.”

청자불상은 다른 도공이 빚어 보시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만들 수 있었지만 한 도공이 자신이 빚겠다며 하소연하는 바람에 양보했다. 탐진 도공들은 불상을 청자로 만들어 보시하면 죽어서 극락에 간다고 믿었던 것이다. 용혈암 용굴법당은 강도에 청자의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찬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천인, 천책스님 때와 마찬가지로 강도의 권신들이 수레를 타고 내려와 기도하곤 했다.

한편, 고종35년(1248) 병이 든 최우는 서자 최만전, 즉 범우를 환속시켰다. 그런 뒤 이름을 최항(崔沆)이라 고치고 예를 배우게 하는 한편, 좌우위상호군(左右衛上護軍) 및 호부상서를 삼고 자신의 가병(家兵) 5백여 명을 주었다.

다음해 최우가 사망하자, 최항은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이병부상서 어사대부 태자빈객, 동서북면 병마사를 겸하는 교정별감이 되어 할아버지 최충헌과 아버지 최우에 이어 최씨 정권의 제3대 집권자가 되었다.

<계속>